

■전남지사 후보에 듣는다 민주노동당 박용두

천안함서 화약성분 검출

“민생 예산 확보 총력 복지전남 실현”

-전남의 비전은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가. 10년 후의 전남을 그려달라.

▲전남이 발전하고 잘 산다는 의미는 결국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잘사는 것이다. 개발보다는 분배, 차별 없는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면서 농·어민들의 소득이 보장되는 전남을 만들겠다. 기업과 개발의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아 이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전남 발전 성장 동력은 농업부터 시작돼야 한다. 정부의 농업에 죽이는 정책과 전남도의 나 몰라라 농정의 폐해는 전남 경제의 근본을 뿌리 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환경친화적 미래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상뿐 아니라 인구유출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제 기업하기 좋은 전남에서 노동하기 좋은 전남으로, 농가소득이 보장되며 소외 없는 복지 전남을 만들 시키다.

-전남도의 당면 현안을 꼽는다면.

▲낮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병해 등으로 겨울농사를 망친 농민들에 대한 보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값 폭락으로 농가 소득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을 짓누르는 상실감, 올해 쌀 농사도 망칠 수밖에 없다는 농민들의 불안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또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도 되돌아봐야 한다. 전남 예산의 블랙홀이 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몰락, 법정관리가 잇따르는가 하면 부도 위기도 높아지는 가운데 노동자들도 체불임금이 증가, 생활고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당선된다면 임기 4년 동안 중점 추진할 정책은.

▲노동자·농민·서민이 잘사는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민생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을 것이다. 특히 예산이 한정된 만큼 도시사 업무추진비·의원 숙원사업비를 폐지하는 등 민생 예산을 3000억원 정도 확보해 무상교육 시대를 열겠다. 친환경무상급식·무상교육·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000억원의 체불임금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역민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이번 선거 분위기는.

▲하달·분노에 따른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 버릇 나빠지고 오만한 민주당을 이대로 가만뉘서는 안된다는 지역민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따라서 남은 정치를 확 바꾸려면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노동자들도 민주노동당으로의 계급투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지방선거의 전략은.

▲정책 공약이 실종된 지 오래다. 민주당의 경우 공천과 비리로 인한 진통만 부각되고 있다. 민생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비롯, 영산강 등 4대강 사업과 노동정책, 인도적 대북지원을 통한 쌀값대책 마련 등 차별화된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굵직한 국제 행사가 줄지어 예정돼 있다.



박용두는 누구

진도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농대에 진학한 뒤 1989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농촌활동대장을 거치면서 농민운동에 뜻을 품고 곡성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농민운동가다. 지난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규탄대회로 구속되기도 했다.

농민회 광주전남 정책실장·곡성군 농민회 부회장·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강기갑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고 현재 민주노동당 강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업무추진비·숙원사업비 폐지
친환경 무상급식사업 등 추진

겨울농사 망친 농·어민 위해
농가 보상 지원책 마련해야

F1 대회·여수세계박람회·순천정원박람회 등 국제적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가.

▲전남에서 처음 시도하는 국제 행사들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빚어진 예산 오남용, 수익성 부재 문제를 포함해 경기 체감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따져봐야 한다. '결정되

■박용두 신상 메모

Table with personal information of Park Yongdu including birth date, education, and career details.

있는데 이제 어찌란 말이나 는 식으로 무턱 대고 덤벼들 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

-광주의 경우 반 민주당 연대를 통해 민주당 독점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전남은 어떤가.

▲남은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당연한 논리라고 본다. 하지만 민주당 심판을 위해 변별력 있게 책임있는 정치를 해왔던 정치세력들과의 연대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전남의 경우 4명의 후보가 나왔다. 그런데 한나라당 후보와 민주노동당 후보가 연대를 한다면 도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여러차례의 선거를 통해 수많은 무소속 후보들이 나왔지만 선거가 끝난 뒤 다시 민주당에 복당했고 열린우리당도 결국 민주당과 합당했다. 반민주당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세력은 민주노동당이 유일하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고 보는가.

▲확실히 달라졌다. 51명의 도의원 중 2명에 불과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해낸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성과와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지원조례·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 등을 비롯, 버거운안정자금 확보 및 쌀값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단식과 사발, 도정질문과 행정사감사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다는 데 지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어뢰 탄약 추정...정밀 분석중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 중인 민군 합동 조사단은 연통(연통)을 포함한 절단면 부근에서 어뢰 탄약으로 추정되는 화약성분을 찾아내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천안함 선체에서 미량의 화약성분을 검출해 현재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화약성분이 어뢰인지 여부는 이르면 금주 내에 판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화약성분이 검출된 부분은 연통을 포함한 절단면 부근인 것으로 안다"며 "성분이 어뢰 탄약인지는 더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단면 인근과 해저에서 발견된 알루미늄 파편도 선체의 재질과 달라 정밀 분석 중이며 파편이 어뢰가 폭발하면서 떨어져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군 전문가들은 선체에서 검출된 화약성분과 알루미늄 파편이 어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동조사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 전문가들도 화약성분 검출 사실을 미국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25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합조단에서 천안함 잔해물을 수거해 성분 분석을 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설명했다.

원 대변인은 "연통에서 화약성분이 나왔는지, 알루미늄 파편이 어뢰가 맞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면서 "합조단의 조사 결과는 오는 20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합조단 관계자도 "현재 잔해물을 분석 중이다.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서 어뢰로 단정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6일 인천시 서구 신세계 장례식장에서 금양 98호 선원 수협장 합동영결식이 끝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장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양호 영결식...34일만에 영면

천안함 실종장병 수색에 나섰다가 침몰한 금양98호의 사망·실종선원 7명의 영결식이 사고 발생 34일 만인 6일 수협장(水協場)으로 엄수됐다.

오전 10시 인천시 서구 경서동 신세계장례식장 앞 마당에서 거행된 영결식은 정운찬 국무총리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군 및 해경 관계자, 수협 임직원, 유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장례위원장인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은 조사에서 "당신들은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한 진정한 어업인이자 순수하게 조국을 걱정했던 애국자였다"라며 "천안함 침몰 때 한달음에 달려가 내 자식같은 조카같은 장병들을 수색했던 그 조건 없는 조국사랑을

간직하고 또 간직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결식을 마친 한국인 실종선원 6명의 영현은 화장된 뒤 4월22일 장례를 마친 금양98호 선원 고(故) 김종평씨와 함께 인천내 시립골당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the 6.2 election candidate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SHOW NATE'.

Large advertisement for '한빛고시학원' (Hanbit Gosihakwon) featuring a building image and promotional text for various courses and discounts.